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강



최재관입니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 10년에 걸친 노동자들의 팍과 정성으로 올해 해남과 완도를 잇는 500m의 완도대교를 완공하였습니다. 완도대교를 이용하는 차량과 사람들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며 완도대교 준공 사진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일 년 수확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읽은 공양의 글이다. 다시 읽어도 코끝이 시큰하고 가슴이 뭉클하다.

마치 티베트 스님들의 '모래만다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티베트 스님들은 아주 의미 있는 때에는 모래만다라를 제작한다.

이번 폐불재를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들여 준비한 그 모습이야말로 폐불재의 백미가 아닌가 하고 말이다.

홍보물을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편 발송 작업을 하고, 연등을 만들고, 과일을 씻고, 나물을 다듬고, 선물을 포장하고, 이부자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풀을 베고, 회의를 하던 그분들이 폐불재의 고갱이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는 백창우입니다. 동그란 굴렁쇠가 세상을 굴러가듯 모나지 않는 예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한 시디(CD)를 올립니다.'

'산스크리트, 빠알리 문학연구소 소장 박경숙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인도 히말리야 설화가 담긴 책 '마하바라타'를 15년 동안 번역작업을 하여 올해 총 5권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인도와 인연이 깊은 미항사 폐불부처님 앞에 책을

올립니다.'

'땅은 없지않아 제 입으로 들어가는 쌀을 사들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밥두레'입니다. 올해 20가구가 모여 만안마을에 땅을 빌려 손모내기하고, 지난 7일에

는 가시를 했습니다. 땅과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어 밥이 되는 쌀을 저희 손으로 거두었습니다. 생애 첫 농사 경험살을 올립니다.'

'현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벌을 치고 있는 김동술입니다. 올 한해도 무탈하게 잘 보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언제나 불평만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꽃과 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을 올립니다.'

'완도대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향은 흠어져 온 땅을 가득 채우고

다섯 명이 엮되려 아주 가는 색도래로 그림을 그리는데, 7일 동안 온갖 정성을 쏟은 것이다. 그때는 호흡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안 된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집중하여 그리는 과정이 완벽한 삼매의 수행이다.

그런데 모래만다라가 완성이 되면 축원을 하고는 곧바로 만다라를 지워 버린다. 잔뜩 기대하고 앉아서 지켜본다면 허망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모래만다라가 무상을 표현한 것이기에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기고



우제길

'라운드테이블'이란 주제로 열린 제9회 광주비엔날레가 11월로 66일의 대장정을 마쳤다. 1995년 창설해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새로운 담론형성과 다양한 실험성들의 결과물들로 이제는 지구촌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고, 더욱이 올해는, 제 1회 세계비엔날레가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높이고 되었다. 또한 이런 이면에는 관계당국의 노력과 우리 지역 시민들의 땀도 컸다.

이런 즈음에 광주 시민으로서, 평생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서 잘 다져진 현재의 모습에 하나 덧붙여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모두 함께 짊어보아야 할 광주 지역 미술계의 토양에 관한 문제다. 마한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 예향남도 대표 작가로서 조선시대의 운문서로

제9회 광주비엔날레를 보내며

부터 소치 허련, 사호 송순현, 외재 허백련과 근대 추상미술의 이 지역 선두에 선 강응운, 양수아, 한국적 색채를 서양화로 잘 표현한 강우의, 여성화가로서 독창적 화법을 시도했던 천경자, 문화적 요소에 조형미를 가미한 김환기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다.

해방 후, 지방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근대 미술의 불을 지웠던 그분들의 노고와 기리고, 향토의 뿌리를 생각해 봐야하며, 작금의 광주 비엔날레가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선배님들의 희생과 땀방울로 일궈낸 광주미술 본향적 의미를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예술의 전반적인 뿌리와 근bone에 관한 문제며,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의 씩을 퇴출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비엔날레는 40개국 출신의 95명의 작가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평등한 대인적 형태의 '집단지식 실천'을 시도했고, 그 주제로는 소통과 화합을 의미하는 '라운드 테이블'이다.

짧고 실력을 겸비한 6명의 여성감독들의

섬세한 감성과 참신한 기획력에 찬사를 보낸다. 덧붙여 바라건대 라운드 테이블이 의미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예향광주의 근본을 생각하면서, 지역적 특성까지 반영했다면 더욱 훌륭한 전시가 되었을 거라고 평가해본다.

주제가 의미하듯 상하가 없는 평등함과 인본적인 사고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무등산이 주는 느긋과 닮아있어 바람직한 표현이었다.

이 지역 젊은 작가와 원로 세대의 작품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광주적인 색채를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 우리들에게도 원로 작가분들이 몇 분 우리 곁에 생존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지역 미술의 산증인이기에, 세계적 문화 축제의 개막식에 광주를 대표하는 최고원로작가들을 초대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세계인들에게 이분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작품세계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계승, 보존시키는 일도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 정서가 풍부한 이곳 출신

NGO 칼럼



김태진

강아지퐁장난감도서관이 문을 연지 2년이 되어 간다. 개관 당시에는 인식이 부족한 터라 "뭐하는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부구를 비롯해 광주 지역 네 곳에 장난감도서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느냐?"라는 질타 아닌 질타를 듣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번이 아니다. 진도군, 두암동 등 각 지자체와 주민센터에서 답사를 다녀가고, 곳곳에서 장난감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고 있다.

강아지퐁 장난감도서관이 짧은 시간에 자

비람난(?) 장난감도서관 엄마와 아이

리를 잡기까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자원봉사' 땀을 수 없다. 장난감 도서관을 빌려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꿉놀이와 블록 장난감은 수량을 일일이 체크해야 하고 자동차 등의 장난감은 고장 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소독을 마친 뒤에는 다시 아이들을 찾아가기 위해 수납장으로 이동한다. 장난감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책까지 대여를 하다보니 혼자서는 도저히 업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원봉사' 엄마들이 함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처음에는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 해준다는 혜택 때문에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자원봉사에 나섰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일주일엔 두 시간 정도만 하자'

라는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나섰던 엄마들이 이제는 매일 도서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아이들 역시 제 집 드나들듯 한다.

시설이 좋고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키즈카페처럼 갖고 놀 장난감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자원봉사 엄마와 아이들은 매일 도서관을 찾고 있다. 처음 일주일 두 시간의 봉사가 어느 순간 매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번이 아니다. 도서관에 새 장난감과 책이 오는 날에는 야간직업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심란하기 그지없었다. 청소도 밀려 있고 빨래도 세탁기에서 정지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남편의 저녁밥도 챙겨주지 않고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까지 한다. 도서관과 '비람(?)'이 나도 단단히 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던 말인가?

나라고 한다. 많이 먹으면 미용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도나도 비타민제를 찾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과연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진 마법의 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비타민 C는 100mg 등 사실 우리가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비타민의 양은 극소량이다. 하지만, 요즘 비타민을 먹는 경우를 보면 일일 권장량을 훨씬 넘는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다. 그리고 식품영양학

비타민제 과다 복용보다 금연·절주·운동이 먼저

지난번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부모님께 혹은 고마운 분들께 많은 사람이 선물로 택하는 게 바로 영양제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더욱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값싸고 간편한 비타민 보충제 같은 걸 찾는다. 최근엔 천연 비타민이 나오는 정도이니 인공기를 알 수 있을듯하다. 심지어 주변에는 비타민 매니아, 비타민 옹호론자들도 많다. 액체 비타민에, 날마다

있지 말고 먹으라는 알약 케이스까지 관련 상품도 무척 다양하다. 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비타민약은 2300억원 정도이고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음료까지 합치면 매출은 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비타민을 먹고 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듯이 비타민도 이렇게 무작정 먹고 불일치는 아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시설

주민들만 모르는 영광원전 정보시스템

영광원전의 잦은 고장과 납품비리에 이어 국내 원전 사상 처음으로 제어봉 균열까지 발견되자 현재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원전의 안전 감시 기능 및 정보공개가 지나치게 한국 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영광원전을 비롯해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나 고장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2-85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고시는 방사선 누출 등의 사고와 함께 불시 고장 등 30여개 항목에 대해 상부에 구두 보고한 뒤 한국 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돼 있다.

현재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발견된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중 발견된 결함 등은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원자력위원회는 "3호기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 6개에서 발

견된 결함은 정상적인 정기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보고 및 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당국이 이번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있다면 정보 공개는 마땅히 확대돼야 한다. 제어봉 균열은 국내 최초의 핵심시설 고장인 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전단계와 비슷한 위험수준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실상공개를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납품비리와 잦은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이럴 때 일수록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규제의 결구를 신속하게 알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부는 운영·감시 시스템을 제정하고, 고장·사고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정치권도 원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이 해결책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최근 3개월간 공사장으로 변했다고 한다. 지난 8월12일 폐막 후 기업관 등 일부 전시관들은 철거됐고, 한국관이나 국제관 등지는 내부 철거작업이 한창이라는 것이다.

철거는 현재 80% 이상 진행됐으며, 영구 보존 시설들도 대부분 작업을 멈춰선 상태다. 빅오 등 일부 특화시설에 대한 재개발이 검토됐으나 관리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다. 남해안 크루즈 관광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람회장내 크루즈 부두도 연간 운영비 2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폐쇄됐다.

심각한 건 박람회장 사후활용마저 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사후활용은 뒷전이고, 투자금 회수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금 4846억 원의 환수를 위해 엑스포 부지·시설의 95% 이상을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투자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여의치만은 않다. 사업 면적이 65만㎡에 달하고, 정부 선(先) 투자자 전혀 없는 것이다. 사후활용을 맡아 운영하게 될 기구 설립도 오리무중이다. 박람회 조직위가 정산업무에 집중하느라 활용 작업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사후활용 계획이 10년건이나 걸릴지라도 이를 빨리 전락한 대전엑스포의 전철을 밟지 않나 하는 위기감마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에 골몰할 게 아니라 선투자자를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후활용 주체로 정부 또는 공공법인체가 전담하는 기구를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정부와 사후활용은 뒷전이고, 투자금 회수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금 4846억 원의 환수를 위해 엑스포 부지·시설의 95% 이상을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투자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無等鼓

최근 광주에 살고 있던 한 지인이 가족과 함께 인근 군지역으로 이사했다. 매일 출퇴근에 1시간 가까이 운전해야 했던 그는 주거지를 옮기는 바람에 직장 출퇴근을 포기했다.

지인이 이사한 이유는 중학교 아들 때문이다. 광주지역 중학교에 다니던 그의 아들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고교 진학 후부터 본격적인 내신 관리를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이사를 결정한 것이다.

지인의 이사는 언뜻 맘모삼천(孟母三遷)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의 사상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고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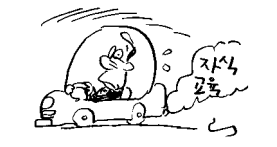
어머니는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했다. 맹자가 맹자가 글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어른을 공경하게 돼 기뻐했다는 이야기다. 맹모삼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들의 장래를 위해 이사를 결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충분하다.

이에 유아기부터 서울로 유학 보내는 부모도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엄밀히 따지면 학력격차)의 실용을 겪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이다.

2013 대학 수능능력시험(수능) 결과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예상 합격선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약조건에도 다른

유래한다. 맹자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 함께 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맹자가 묘지 파는 흥내를 내며 노는 것을 보고 교육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

그렇더니 맹자가 이번에는 물건을 팔고 사는 장사꾼 흥내만 내는 것이었다. 이곳도 안 되겠다고 생각한 맹자의



농촌 유학

다. 이곳도 안 되겠다고 생각한 맹자의

지방 일부 대학은 학과별로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린다는 보도도 있다. 전남대를 비롯한 우리 지역 대학도 한 때 선망의 대상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 우수 학생들마저 외면한 지 오래다. 인재들을 지역으로 남도록 하는 것, 지역대학의 급선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재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광고매점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사건부 2200-693	다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건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